

월요광장

공재 윤두서와 다산 정약용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해남과 강진 일대에 세겨하는 해남 윤씨는 대단한 가문이다. 학자나 고관, 문학이나 예술에 뛰어난 분들이 많았던 가문이어서 온 세상에 크게 이름이 알려진 성씨였다. 기묘사화 무렵에 문과에 급제하여 육당이라는 흥분관 학사로 있던 굴정 윤구(尹衢)는 조광조 선생과 뜻을 같이 했던 분으로 일찍 낙향하여 벼슬은 높이 오르지 못했지만, 최산두·유성준과 함께 호남 3절이라는 명성을 얻은 위인이었다. 윤구의 두 아우 또한 문과에 급제해 고관에 올라 해남 윤씨는 온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씨족이 되기에 이르렀다.
굴정의 두 아들 또한 문과 급제로 고관에 오르고 증손자 고산 윤선도에 이르러 학문과 문학으로 한 세상에 이름이 가득하던 학자가 되었다. 효종의 사부이자 예조참의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예학(禮學)에 밝은 학자이자 국문 시조의 작가로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윤선도의 증손자가 바로 공재 윤두서(1668-1715)였으니, 공재는 그림으로 조선 3재의 한 사람에 들어가지만 박학다식한 학자로서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공재의 외증손자가 바로 다산 정약용이었으니, 다산의 어머니 해남 윤씨가 바로 공재의 손녀였다.

다산은 여러 글에서 외가 증조부 되는 공재에 대한 애석함을 자주 거론했었다. 공재가 그린 자화상은 뛰어난 그림으로 국보로 지정될 정도의 높은 예술성을 지녔지만, 다산은 공재가 화가에 그치지 않는 큰 학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치 추사 김정희가 글씨만 잘 쓰는 서예가로만 알려지고, 당대의 탁월한 경학자(經學者)임을 모르듯이, 공재의 학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산은 여러 곳에서 설명한 바 있다. “공재께서는 성현의 자질을 타고 나시고 호걸의 뜻을 지니셨기에 저작성인 것에 이러한 종류가 많습니.”(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중형에게) 공재는 성현(聖賢)의 자질을 타고 나셨다니, 이런 말을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산의 안목으로 공재가 성현의 자질을 지니셨다면 보통 분이 아님은 충분히 알 만하다.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공재가 손수 베꼈다는 일본 지도와 조선 지도 한 폭을 보면 공재의 지리학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가도 금방 알게 된다. 중형에게 보낸 편지는 계속 된다. “애석하게도 시대를 잘 못 만났고 수명까지 짧아서(48세) 끝내 벼슬도 못하고 세상을 마쳤습니. 내외(內外)의 자손 중에서 그분의 피를 한점이라도 얻은 자라면 반드시 뛰어난 기상을 지니고 있을 터인데, 역시 불행한 시대(남인들이 몰락한 시대)를 만나 번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운명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고산의 집안 해남 윤씨는 대표적인 남인 가문이었다. 기해에송으로 남인과 노론이 싸울 때 고산은 남인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노론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기 때문에, 조선 후기 노론이 집권하던 시대가 계속되면서

해남 윤씨는 탄압받는 집안이어서 출세하기가 어려웠었다. 다산 정약용 집안도 남인의 가계였었다. 성현의 자질을 지녔던 공재의 직계 후손들에게야 당연히 공재의 피가 전해졌고, 다산은 외후손으로 한점의 피는 받았겠지만 남인인 때문에 노론 벽파의 강력한 탄압으로 긴긴 유배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노론의 미움을 산 해남 윤씨, 비록 크게 현달할 길이 없었지만 공재 같은 위인이 나왔고 그의 아들이나 손자도 당대의 화가이자 학자로 큰 명성을 얻었으며, 외증손자인 다산 정약용은 글을 쓰던 그 당시에도 귀양 살던 시절로 볼우하기 짝이 없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1818년 다산은 귀양살이에서 풀려났고, 귀양살이 동안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마쳐, 조선 최고의 학자·사상가·경제가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만인의 추앙을 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공재의 한점 피를 받았던 정약용, 외가 핏줄을 속이지 못한 위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로서 다산은 어렸을 때부터 외가의 피를 이어받은 점을 자랑스럽게 여겼었다. “나의 정분(精分)은 대부분 외가에서 받았다”(吾之精分多受外氏, ‘사암선생연보’)라고 말하며 자신에게는 외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시인했다. “조그마한 공재의 초상화가 집에 남아 있는데, 다산의 얼굴 모습과 수염이 공재를 많이 닮았다”라고 했듯이 다산에게는 외가의 영향이 그렇게 컸었다. 귀양살이 18년에도 대부분의 서적은 외가의 것으로 그 많은 저서도 외가 덕으로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호남의 피를 받아 호남에서 이룩한 다산의 학문, 호남 땅에서 실학의 집대성자가 배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필의 향기

노을



김향남
수필가

노을은 아침에도 뜨고 저녁에도 뜬다. 아침노을이 눈부신 햇살을 거느리고 온다면 저녁노을은 어둠을 동반하고 온다. 아침노을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저녁노을은 하루의 끝을 알리거나 노을은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며 우리의 삶을 경인한다. 그러나 아침노을은 밝아 오는 햇살을 따라 금방 잊게 되지만, 저녁노을은 그 여운이 참 하염없다. 언제 그랬나 싶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건만, 그 뒷임으로 오히려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어느 해 지리산에 갔다가 뜻밖의 행운(!)을 만난 적이 있다.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때였다. 숲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고 자동차는 막 고개를 넘어 가려는 순간이었다. 문득 온 천지가 다 붉었다. 혹시 불이 난 것이 아닐까의 구심이 들 만큼 놀라운 광경이었다. 하지만 절대 놓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걸 직감한 나는 후딱담 차에서 내렸다. 하늘과 해와 구름, 산과 들과 마을 들이 함께 빛어낸 황홀한 놀라보였다. 나는 말더듬이었다. 내 입에선 겨우 우와야아, 아야야아 소리만 연이어질 뿐이었다. 말도 아니고 말이 아닌 것도 아

닌, 울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소리였다. 그 사이 노을은 더욱 성세를 이루어 그 빛깔이며 색채까지 오묘하기 이를 데 없었다. 퇴근길도 좋고 부엌 쪽창도 좋지만 그것과 땀 것이 아니었다. 그곳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었다.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었다. 아침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다시 아침이 되는 축복의 자리였다. 영원히 아침만 계속되고 영원히 저녁만 계속되는 삶이라면 얼마나 지루한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낮과 밤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일 것이다.

사실 노을은 언제나 뜬다. 하지만 낮과 밤의 오묘한 경계에 있는 데다 지속되는 시간도 매우 짧고(기껏해야 20-30분 정도?), 간혹 우천으로 취소가 되거나 희미한 장관만 남긴 채 짙까 저버릴 때도 많아서, 그 ‘때’를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물론 관람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시간대가 바뀌는 것도 아니어서 여유만 가진다면 보지 못할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이 늘 열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고, 별다른 생각 없이 사소하게 흘려가 버릴 수도 있다. 아무리 흔해도 불현듯(불을 견 듯이) 다가오는 때는 흔치 않은 일이다.

서남해의 섬 진도에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노을 명소가 있다. 때마다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구경하는 것 말고 달리 할 일도 없었으므로(우리는 2박 3일 진도 여행 중이었다), 자연히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바다 위엔 피노키오의 모자 같기도 하고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의 배 같기도 한 크고 작은 섬들이 떠 있다. 하늘은

그 사이로 노을이 스며들 것이다. 시간이 되자 어디서 오는지 관망객 수가 더욱 늘었다. 아무리 유명하기로서니 누가 여기까지! 하던 생각은 곧장 내버려야 했다. 낯은 어제도 흐리고 오늘도 흐리지만 사람들은 자꾸 밀려들었다. 변화무쌍한 것이 날씨는 것을 다 아는 까닭일까. 하지만 그것도 삼대쯤은 죽히 떡을 쌓아야만 가능했던 것일까. 돌연 취소된 공연장 앞에서 우리는 모두 바람 빠진 풍선이었다.

노을은 언제 봐도 좋지만 그중 최고일 때는 예상치 못한 순간이 아닐까. 몸도 마음도 녹자근해져 돌아올 때, 공연회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 흐리고 습하거나 구름 끼어 어두울 때, 외롭고 쓸쓸할 때, 권태롭고 지루할 때, 그때를 틈타 불현듯이(!) 오는 때다. 죽어 있던 감각이 화들짝 깨어날 때, 종종 눈빛이 살아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

마음로 돌아오는 길, 처음엔 하늘에 걸린 등불인가 싶었다. 뜬금없는 등불을 쫓아 우리는 한 해변에 이르렀다. 아무도 없는, 한적하고 어두운, 광활하고 조용한 해변이었다. 그곳에 노을이 불타고 있었다. 저 혼자서 노을이 세상을 불태우고 있었다. 나는 다시 병어리가 되었다. 동글동글 잘 생긴 몽돌 위에 앉아 우와야아, 아야아 탄성마저 삼켰다. 노을은 마구 울안 물결처럼 사방으로 흘러져 바다까지 물들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밝은지 낮은지, 삶인지 죽음인지 알 수 없는 순간이었다. 노을은 한 번 더 격하게 몸을 뒤틀더니 홀연 열반에 들었다. 우리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눈부시고 장엄한, 아름다운 열반이었다.

올 추석에는 우리 농축산물로 마음을 전하자

기고



박서홍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예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추석이 벌써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은 그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준 것에 감사하는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이며 농사의 결실을 보는 절일(節日)이다. 아울러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수확의 기쁨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풍요를 기리는 세시풍속이 행해지는 명절이기도 하다. 나눔의 상징인 추석 명절 선물은 50-60년대 밀가루·설탕부터 오늘날 상품권·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하지만 시대와 가치가 변해도 추석 명절 대표 상품은 우리 농축산물이어야 한다. 추석은 코로나 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민족 대명절’이라는 수식어답게 농촌에는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의 물자가 교류하는 도농 상생의 상징이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농축산물을 주고받는 세시풍속은 여전히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설·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 볼 수 있겠다.

올해처럼 이른 추석의 경우 특정 품목이 주 출하 시기와 맞지 않거나 기름·폭우 등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현상은 농산물 생산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바람직 필요가 있다. 출하 시기를 매년 추석 시기에 맞춰 제값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농업인의 소임이다. 그러나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경우 기후나 환경적인 여건들로 인해 때때 원하는 시기에 맞춰 출하량을 조절하리란 여간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매년 농업인은 추석 대목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위축될까 걱정하면서도, 추석 이후 수요량 감소로 농가 소득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주 출하 시기에 가격 하락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실제 추석 명절 이후 1-2주 동안은 농산물 수요가 급락하기 때문에 대형 마트나 도매시장에도 판매 가격을 내리거나 산지 출하를 자제시키기도 한다.

일부 언론에서 벌써부터 값값에 빗대어 추석 명절 농산물 가격 상승이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다.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처럼 생산비 상승이 작용하거나 생산자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임의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감소한 우리 농축산물이 비싼 값을 받는 상황에서 올해 질 좋은 우리 농축산물이 더 귀해졌다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까? 귀한 농산물이 소비 시장에서 푸대접을 받아야만 소비자들이 행복해진다면 이 역시 기이한 구조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추석 대목의 한철 가격 상승이 온전히 소비자

의 몫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농협은 지난 61년 동안 농축산물의 공급 과잉을 농업인의 몫으로 미루지 않고, 또한 수요 과잉을 온전히 소비자의 몫으로 미루지 않기 위해 존재해 왔다. 농협은 소비자의 높은 물가에 대한 피로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살맛 나는 국민 밥상’이라는 범농협 캠페인을 전개하며 소비자들에게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추석 농축산물 특판 종합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살맛 나는 추석 만들기’ 프로모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9월 1일부터는 국회에서 ‘추석맞이 농축산물 대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전남 농협은 전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8월 11일 농협 대전유통센터에서 전남 농산물 특판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햅쌀·배·멜론 등 대표 추석 상품과 백향과, 애플망고 등 국산 이색 과일에 대한 라이브커머스도 월 2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29일부터는 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전남을 대표하는 품목을 엄선하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요즘은 고향이 대도시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명절 연휴에 고향을 찾는 대신 ‘마음의 고향’을 찾는다고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바로 그런 마음의 고향을 찾아주는 정책이라 하겠다. 추석 명절이 귀한 분들과 귀한 우리 농산물을 나누며, 도시와 농촌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생하는 절일(節日)이 되었으면 한다.

社說

이재명 체제 통합·쇄신으로 국민에 희망 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이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에서 77.77%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대선 패배 4개월여 만에 169석 거대 여당의 수장으로서 새로운 시험대에 선 것이다. 이 대표가 계파 간 갈등과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민주당의 통합과 쇄신을 이끌어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통합과 민생 회복, 재집권 토대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호의 출범은 민주당에게 기회이면서 고비이기도 하다. 넘어야 할 산이 험악한 탓이다. 우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헌 개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내부 통합을 이루는 것이 숙제다.

이 대표의 당성은 민주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강성 팬덤층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은바 크다. 여기에 최고위원들까지 친명계가 사실상 독식해 ‘이재명 친정 체제’가 구축되면서 강경 일변도 노선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심의 선택을 받지 못해 3연패한 바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체질을 개선해 변화와 쇄신의 길로 이끄는 것이 이 대표에게 주어질 책무다.

지금 민생 경제는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은 입법 권력을 바탕으로 민생 과제에서 성과를 내 ‘유능한 민주당’의 역량을 보여 주는 것이다. 철저한 자기 혁신으로 진영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교체를 이끄는 것도 그중 하나다.

제1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협치도 새 지도부의 과제다. 이 대표는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선거 승리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대에서 호남의 낮은 투표율이 보여 주듯 민주당을 향한 텃밭 민심은 아직 싸늘하다. 따라서 희망을 주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야재집권의 토대를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치킨 게임’ 내홍 조선태 미래는 안중에 없나

조선태 이사회가 민영돈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전격 요구하면서 학내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학 운영에 책임이 있는 양 기관이 한국 최대의 민립대학이자 호남 최대 사학인 조선태의 미래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서로 힘 겨루기만을 일삼는 상황에 대해 학내는 물론 지역 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한 대학 이미지 실추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023 신입생 수시 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조기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미래사회융합대학 ‘평생 교육체 지원 사업’ 보고서 누락과 6학기 동안 강의를 하지 않은 공과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시작됐다. 대학 교원인사위원회가 당사자들만 징계하고 관리 책임자였던 단과대학장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이사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총장 직권으로 징계안

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권한 침해라고 이를 따르지 않았고, 이사회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단순히 징계에 대한 이견을 넘어 자율권을 지키려는 대학 구성원과 법적 기구로서 조선태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회의 해묵은 갈등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학과 통폐합 등이 수반되는 학사 구조 개편 등 대학 혁신안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선태는 1988년 이후 극심한 학내 분규로 임시 이사 체제 등을 오가다 2년 전에만 정상화됐다. 지방 대학들이 고사 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미래에는 아랑곳없이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양측은 진정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하루 속히 마련해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 기념물 제280호)는 덮개돌인 상석(上石)의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면적 1615㎡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석묘로 알려져 있다. 김해시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해왔다. 호사다마라고 유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당이 났다. 지석묘 아래에 있는 박석(얇고 넓은 돌)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文化層)이 있는 데도 정비 공사 과정에서 발굴·조사한 뒤 훼손군과 협의의 거쳐 인근 도로가에 공간을 조성하고 이전·복원했다. 군에서 선사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모르는 문화층을 훼손해 복원·정비 사업이 무색해진 셈이다.

고인들의 운명

한반도에서 고인돌 최대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전남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무려 2만 기를 웃도는 고인돌이 산재해 있으나 70~80년대 경지 정리, 대규모 건설 공사로 훼손된 고인돌이 사라졌다. 지난 4월 강진군 성전면 수암마을에서는 농지 확·포장 공사로 고인돌 세 기가 파헤쳐졌다. 시공사가 고인돌을 중장비를 동원해 옮기는

등 훼손했다. 사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고인돌은 수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남문화재연구원도 지난 2004년 발굴 조사한 결과 수암마을은 고인돌 20여 기가 산재한 문화재 구역이었기 때문이다.

문화재는 발굴 주체에 따라 운명이 갈리기도 한다. 화순군 도암면 운월리 운포마을 고인돌은 여섯 기는 지장도 817호선 확장 공사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전남 대박물관은 1998년 운포마을 고인돌을 발굴·조사한 뒤 훼손군과 협의의 거쳐 인근 도로가에 공간을 조성하고 이전·복원했다. 군에서 선사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모르는 문화층을 훼손해 복원·정비 사업이 무색해진 셈이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더라면 운포 고인돌은 사라졌을 것이고 화순군과 전남 대박물관의 의지가 없었다더라면 소중한 유적이 보존되지도 않을 것이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고분과 지석묘 등 문화 유적을 발굴하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문화재를 발굴·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은 문화재 훼손을 막고 원형 그대로 있던 장소에 보존하는 일이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title '光州日報'.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